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김경진(숙명여대), 허윤지(홍익대 대학원), 김은총(한국외대) 박선률(금강대)

---

## SDF2014

\*연사: 콰미 페레이라 / Ferreira, Kwame

\*소속/직함: 콰미코프 CEO / CEO, Kwamecorp

\*연설: "창의적 연결성과 감성혁신의 시대"

"Creative Connectivity and the Age of Emotional Innovation"

---

(Time Code 00:25:44)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포럼 2014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Good afternoon!**

**I'm SBS anchor Hwan Kim, hosting  
2014 Seoul Digital Forum.**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라는

주제 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theme of ‘Innovative Wisdom Technology for the Common Good’  
we are here to gather our wisdom to make better future.**

(Time Code 00:25:58)

김환: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물건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nnovative product in human history?**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 폰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Perhaps, many people choose smartphones.**

저 또한 스마트 폰을 선택 할 것 같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me, too.**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트 폰과 관련 있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session, you will listen to very interesting story about smartphones.**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콰미 페레이라의 ‘혁신적 대화의 기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To get closer to people, ‘Kwame Ferreira’s innovative dialogue technology’  
Let’s meet him together.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applause.**

(Time Code 00:26:37)

**콰미 페레이라:**

안녕, Let me do that again. Music. I can do it. I can’t.  
I’m just going to say Hello. Because I a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I have wonderful things to show you and I forgot  
how to say hello in your crazy language.

안녕, 다시 할게요. 음악 주세요  
못 할 것 같네요, 그냥 인사하려던 거였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되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줘야 해서  
한국어 인사말을 까먹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All right. My name is Kwame and I run a group of individuals,  
designers and engineers that create amazing services and product for this planet.

제 이름은 콰미고 디자이너들,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지구를 위해  
놀라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you see this beautiful image behind us is  
because that’s really the view from one of our offices.

뒤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사진이 우리 사무실에서  
보이는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I tend to send my designers and engineers to places where  
they’re closer to nature so that they don’t forget who and what  
they are really creating for.

저는 디자이너들과 기술자들을  
보다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보내곤 하는데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Time Code 00:27:39)

In the next (to) 20minutes, they say about 18 because we're live on television, 7200 babies will be born on this planet.

앞으로 20분 동안, 약18분쯤이겠네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어서요

7200명의 아기가 지구상에 태어날 겁니다

Now you can say that they will be born, but in reality they will be created.

그들에 태어날 거라 하지만 실제로는

창조되는 것이죠

Right? And, that is something that I want to stay with you (to) through this presentation that we create and we need to be responsible for what we create.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발표 내내

이야기하려는 것인데요

우리는 창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창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So I am going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the creator's process and what it means to create.

그리고 여러분들께 창조자의 과정과

창조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When we look at creation, you know creation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if you were to do yin-yang what would you have? Know it's not destruction?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한 편으로는 창조가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 굳이 음양을 따지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It's actually validation (that we have). Sounds a bit boring,

그것은 검증이죠

약간 지루하게 들리는데요

But if I was to replace the validation with a word, value,

then it starts to be a little more interesting. Right?

제가 이 단어를 가치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이제 좀 흥미롭게 들리죠  
그렇죠?

Because you create and then you need to validate,  
you need to see if it actually matches the values that you are creating it for.

여러분은 창조를 하죠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이 때문에 창조 결과물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가치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And those values so far have been...

Is it profitable? Is it getting attraction?  
Is the market happy?

지금까지 그러한 가치들은 보통  
수익성이 있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가?  
시장의 반응이 좋은가?

And perhaps we need to start looking at other values.

그리고 우리는 다른 가치들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That is why we have created the methodology internally called (the) VOID  
which stands for Value Oriented Innovation Design.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끼리 VOID라고 부르는  
방법론을 만든 이유인데요  
가치지향적 혁신 디자인을 뜻합니다

Because that's what we do; innovate. Right?

And we innovate in really fast cycle so we do  
design and engineering and validate.

And for those who were little bit more (like) human,  
we think we make and we validate.

우리는 혁신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매우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검증합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고 검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제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말이죠

(Time Code 00:29:36)

When you have a baby and you see a baby growing,

you want to make sure throughout its life that it has your values.

만약 여러분들이 아기가 있고 성장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기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투영시키고자 합니다

Right? And if it doesn't, then usually there are issues there.

그렇죠?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You know why should that be different for a radio?

For example, this is porcelain radio that we've done.

이것이 라디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만든  
자기로 된 라디오입니다

So, creating is not innovating. In order to innovative  
we have to go beyond just creating.

그래서 창조와 혁신은 같은 말이 아니지요  
혁신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value is there.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덧입혀야 합니다

Most creation, actually let me rewind that, most innovation is incremental,  
so we start off with something that already exist and then we build upon it.

대부분의 창조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Right? And that's fine. You know we can't destroy everything  
and rebuild all the time, reinventing the wheel.

이것은 현명한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해 다시 처음부터 만들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It is very hard sometime to validate to see if the values are there  
because you are building on a structure that is already so big.

때때로 가치가 제대로 투영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커져버린

구조물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So sometimes, you need to break your problems apart and you need to make sure, and that's not breaking everything down, but it's literally looking at problems and making sure that the values which we create are there. And then we start rebuilding it according to those values.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들을 쪼개어  
제 말은 모든 것을 다 쪼개라는 말은 아니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가 제대로 투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 가치들에 따라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Time Code 00:31:09)

So, the two essential values that I would like to speak about today and I'm going to do more than speak, I'm actually going to show you a couple of examples, 'Openness and Transparency' and 'Connected Creativity'.

그래서, 두 가지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로 개방성 및 투명성, 그리고 연결된 창의성입니다

So, transparency for us will change the world.  
Because it's 4o'clock lunch time is two hours behind us,  
I put this delicious image of pancakes up there.

투명성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4시 점심 먹은 지 2시간 지난 뒤기 때문에  
이 맛있는 팬케이크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What I love about it is not only that it is delicious  
but it comes with a recipe, right?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팬케이크가  
맛있기 때문뿐 만 아니라 요리법이 함께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I know where my pancakes come from,  
I know where my coffee comes from.  
Who here knows where their phones come from?  
Not many, right?

우리는 팬케이크가 어디서 나오는지  
커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많지 않습니다

So we've done, partnered up with a company called Fairphone, and we've released the first phone that has real social and ethical values behind it.

그래서 우리는 페어폰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진정한 사회 윤리적 가치를 지닌 휴대폰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We know where each component comes from, we clean up the supply chain, we make sure it has the values that we feel (that) we will make this product comes from the earth and goes back to the earth in an elegant way.

It is opened and just like the internet and digital media it needs to be opened.

우리는 각각의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공급 체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의 가치를 담도록 하였는데요

우리는 이 제품이 고귀한 방법을 통해

지구로부터 나오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처럼

휴대폰 제조에 관한 것도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Time Code 00:32:41)

The tackle of my talk but I tend to digress, is creative connectivity.

이번에 태클할 주제는, 자꾸 새긴 하지만

창조적 연결입니다

Creative connectivity is that second value tha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창조적 연결이 바로 오늘 말할

두 번째 주제이고요

Here is a picture of modern day family, and there's nothing really strange about this picture, apart from the fact that the dog has a tablet, everything else is pretty normal, right?

여기, 한 현대 가족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개도 태블릿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다 평범하죠?

And you could say, "It is." or you can say

"No, I don't really want that kind of scenario at home."

이 그림을 보고 "평범하네요"라고 말하거나  
"아뇨, 집에서 저런 시나리오는  
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would like to start creating services and products  
that liberate us from the screen.

저는 스크린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So, we started doing wearables and now we are producing BOND.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만든 게 BOND입니다

And BOND started out as a simple idea,  
modular approach, we have different modules,  
and different modules do and sense different things.

BOND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모듈 접근법을 사용해 각각의 다른 모듈이 있고  
각 모듈은 각자 다른 걸 감시하고 정보를 받아서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So right away you have versatility,  
so it's not just used for one thing.

그래서 바로 다기능성이 생겨요  
다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쓰지 않으니까

Those little modules can be used as apps,  
so you can buy different modules  
and have T-money, you can have your car keys,  
you can have a little fitness tracker in there.

작은 모듈 하나씩을 앱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른 모듈을 구매해서  
티머니, 자동차 열쇠, 아니면 작은  
피트니스 트래커(신체활동 추적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It looks beautiful, it looks like jewelry, it fits your lifestyle.

아름다운 악세서리같은 외형에  
각자의 생활에 맞게 만들 수 있어요

It ticks all the boxes.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하죠



But most importantly (it) started out to be very simple idea that wearables can be used for communication without a screen.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면 없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소통을 해보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So, the idea is that it came in pairs, I gave one to my loved one, and I touched it and my loved one felt the touch.

각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하나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고  
제가 만지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That simple. And it can start that simple.  
Most of those ideas need to be simple.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간단해야 합니다

(Time Code 00:34:26)

The last service that I'm here to present, we're actually launching it today with you guys here in Korea and it is called loklok.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비스는  
오늘 한국에서 여러분도 쓸 수 있게 함께  
출시하는 서비스고 이름은 락락(lokkok)입니다

The vision behind loklok is one where, it's really about connected creativity.

락락은 기본적으로 연결의 창조성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So how can we be more creative when we're connected?

연결을 통해 어떻게 더 창조적일 수 있을까요?

We are already connected via Facebook, via twitter, we're all connected, Kakaotalk does a wonderful job.

지금도 우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카카오톡도 연결을 잘 해주고 있죠

How can we be more creative in this connectivity, right?

And so, that was the question and the answer came to be actually loklok.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더  
창조적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 나온  
답이 락락이었습니다

We imagined a service that takes your mobile phone  
and makes it feel like a portal into somebody else's mobile phone.

생각의 끝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가는 포털처럼 만들게  
하는 걸 상상해냈죠

So the best way to do that is with your lock screen. Why?

포털을 만들기 제격인 곳은 락스크린입니다  
왜일까요?

Because you reach for your phone on average a hundred and fifty times.

핸드폰을 평균 150번 정도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So you are going to see a lock screen a lot.

자연스레 락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Time Code 00:35:32)

And usually what you see are massive little annoying pop-ups and notifications.

그리고 보통은 참 많이 떠서 짜증이 나게 하는  
팝업과 알림을 보게 되죠

Why don't we take that space and make it truly magical.

그 공간을 가지고 정말  
마법 같은 걸 만들어보자는 거죠

This is loklok, and the idea is you have two phones, I have one here with me,  
the other one is in the audience with the beautiful girl that I met yesterday.

이게 바로 락락이고, 두 개의 핸드폰이 있을 때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여기 청중 속에 있는, 어제 만난  
아름다운 여자분에게 하나 드렸어요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it works.

지금 락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리죠

So, I'm just going to turn it on, and that's a lock screen.  
And in this lock screen I can just touch it and I can scribble something,  
I can say, I can make a heart, that's an awful heart,  
let me just delete it, and make a nicer heart,  
and then I can put SDF and then I can actually take a picture,  
let me take a picture of this, of you guys.

핸드폰을 켜면 락스크린이 보입니다  
이 락스크린을 만져서 뭔가 말할 수 있으니까  
하트 하나를 그렸는데 아, 정말 예쁘지 않은 하트네요  
자 이렇게 지운 다음, 좀 더 예쁜 하트를 그리고  
그 위에 SDF라고 쓰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한 장 찍죠

We're going to do a selfie, which is quite popular these days.  
So here I am, a selfie, voila, and I now upload it  
and somewhere in the audience a gorgeous lady that just turned her phone on  
and see a wonderful man saying hello, a heart and SDF which could mean  
Seeyou Dinner Friday, potentially?

요즘 유행하는 셀카를 한 장 찍을게요  
짜잔, 이렇게 찍은 한 장을 업로드해서  
여기 청중 속의 아름다운 여자분이 지금  
핸드폰을 켜서 한 멋진 남자가 인사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옆에 하트와 SDF라고 쓴  
글을 보면 Seeyou Dinner Friday  
금요일 저녁에 봐요,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She's going to comeback with something  
and hopefully she'll do it in the next few seconds.

그녀가 또 몇 초안에 무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So the next time I turn this on, I think we'll see magic and there's magic.  
So, I'm surprised.

다음에 핸드폰을 켜면  
마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죠

(Time Code 00:37:41)

Suddenly, oh! There's this connectivity.  
갑자기 와, 이렇게 연결된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I didn't have to go into an app, I didn't have to open up something and it is right there.

앱을 실행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 있어요

Suddenly with loklok, my phone makes me a much more creative human being and it turns itself into a magical portal.

락락이 있는 핸드폰이 저를 굉장히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핸드폰은 마법과 같은 포털이 되는 거죠

So, I want you to, My final thoughts are as designers, engineers and people who delve into digital realm in order to make good for this planet, and become wiser, we cannot forget that which is most important in this, which are the underlying values, by which, through which we create.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행성을 위해 디지털 세계로 뛰어드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두 더 지혜로워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They are the live source of creativity.

그 가치들이 바로 창조의  
살아있는 원천입니다

And we must treat our project very much like babies because they will grow and they will change this worl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give them all the love we can.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아기처럼 다뤄야 합니다  
아기처럼 자라서 이 세상을 바꿀 테니까요  
이 아기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ime Code 00:38:55)